



##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of Personal-myths Writing Education Using the Archetypical Meaning of 〈Dangun Myth〉

---

저자 (Authors)	민지훈, 전한성 Min Ji-hoon, Jeon Han-sung
출처 (Source)	<a href="#">국어문학</a> 76, 2021.3, 39-70 (3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국어문학회</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4517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45178</a>
APA Style	민지훈, 전한성 (2021).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 연구. 국어문학, 76, 39-7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1 16:3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 연구

민지훈\* · 전한성\*\*

## 〈 목 차 〉

- |                              |                         |
|------------------------------|-------------------------|
| I. 논의의 필요성                   | III. 자기 신화 쓰기의 교육 내용 구성 |
| II.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와 자기 신화 쓰기 | IV. 남는 문제들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하여 자기 신화 쓰기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C.)의 구조주의 신화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자기 신화 쓰기’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서사와 신화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함의하는 ‘언어적 매개 활동’임을 규명한 후,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가 ‘개인의 언어적 성장’과 ‘언어 문화 유산의 계승’ 측면에서 국어교육적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둘째,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의 목표를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적용(Apply)’, ‘해석(Interpret)’, ‘관점(Perspective)’ 측면에서 상세화하고, 교육 내용을 ‘지식과 수행의 연계’ 및 ‘과정 중심의 원리’ 활용, ‘기억된 과거-인식된 현재-예견된 미래’의 통합적 조망을 원칙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서사 윤리의 가

\* 제1저자. 대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동국대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객원교수

치를 내면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고전 텍스트의 해석을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신화연구,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 존재론적 상승 욕구, 공감, 자기 신화 쓰기, 이해 중심 교육과정

## I. 논의의 필요성

본 연구는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하여 자기 신화 쓰기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상징적 이야기인 <단군신화>에 나타난 원형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자기 신화를 만들어보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전통문화로서 전해 내려오는 고전<sup>1)</sup> 텍스트를 학습자 자신의 현재 삶과 연결지어 해석하며 실제적인 ‘해석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국가 및 지역사회, 작가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습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세계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세계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서사윤리의 가치 내면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화는 신성성을 지닌 존재들 간의 사건을 통해 전승 집단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삶의 본질 및 기원에 대한 관념을 형상화한 언어 구조물

---

1) 여기서의 ‘고전(古典)’은 “시·공간적으로 오래된 텍스트와 현재의 주체가 맺고 있는 관계 양상(조희정, 2006)”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밝힌다. 고전 텍스트를 단순히 ‘과거에 존재하는 물리적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가 매개하는 해석적 노력, 역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작용태(박인기, 2008)”로 보는 본 연구의 전제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이다. 신화(myth)의 어원인 뮈토스(mythos)는 “전통적 이야기”와 “이야기 및 그것과 관련된 의식을 생성해 내는 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Green, L., 유기천 역, 2000). ‘전통적 이야기’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인간의 본질 및 기원적 요소를 주제로 다루는 신화의 본질을 가리킨다. ‘이야기 및 그것과 관련된 의식을 생성해 내는 틀’은 인간의 원형적 사유 세계가 지닌 규칙에 따라 주제를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신화의 특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신화는 미개한 원시인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 전범’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으며, 최근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다시쓰기(rewrite)’<sup>2)</sup>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어교육 연구 및 실천 측면에서는 신화가 지니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신화 텍스트로 평가받는 <단군신화>의 국어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앎과 삶의 친연성을 도모하는 실제적인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서사윤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단군신화> 제재 국어교육 내용 구성은 대체로 문학 연구와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원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조희정, 2015). 대부분의 학습활동들이 천부지모(天父地母) 화소를 기반으로 하는 해석과 토테미즘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을 차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국조의 기원 형상화’라는 관점을 규범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렇게 특정한 관점(역사적 기능성)에서의 해석만을 의미 규범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의 작동태를 강조하는 문학교육의 지향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sup>3)</sup>

2) 20세기 들어 발생한 탈근대 패러다임 속에서 드러나는 문학, 예술, 문화 영역의 특징은 ‘다시쓰기(rewrite)’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쓰기’란 주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다른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것을 뜻하는 개념으로, 작가의 독점적 지위와 권위를 거부하고 독자에게 새롭고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였다는 점, 독자의 수행이 단순한 수용 차원의 ‘읽기’가 아니라 수용과 생산을 아우르는 특성을 활동이라는 의미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오세정, 2014)

최근 <단군신화>의 국어교육 내용 구성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황혜진(2012), 조희정(2015), 황윤정(2017), 민지훈(2020) 등을 들 수 있다. 황혜진(2012)는 <단군신화>를 접하는 현대 독자들의 수용 양상 분석을 통해 ‘역사의 기능성에 경도된 현대 독자의 수용 양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 <단군신화>의 상징에 참여하는 방법과 <단군신화>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 구안을 제시하였다. 조희정(2015)는 <단군신화> 텍스트에 반복되는 변화(化)를 중심으로 한 단군의 탄생 과정 해석을 규명하고 기존의 해석과 차별화된 <단군신화>의 재해석을 도출하였다. 황윤정(2017)은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C.)의 신화소 개념 및 구조주의 신화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신화를 포함한 설화 전반의 이해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민지훈(2020)은 <단군신화>의 구조와 원형적 의미를 밝히고 신화의 전승 과정에 주목하여 신화 전승 교육의 내용 구성을 마련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단군신화> 텍스트의 해석을 다양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실천적 지식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화의 이해 및 수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표현 및 생산(창작) 측면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의의와 내용 및 방법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의 측면에서 신화의 현대적 의의를 살리며 문학 생산(창작) 교육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하여 자기 신화 쓰기의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는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다. 때문에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

---

3) 관련하여, 익명의 한 심사위원께서는 ‘건국신화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채 <단군신화>의 해석을 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 그러나 현행 <단군신화> 제재 국어교육 내용 구성은 대부분 <단군신화>에 내재된 건국신화로서 의의를 강조하는 해석만을 획일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핵심 중 하나는 현대에도 유용성을 지닐 수 있는 <단군신화>의 해석을 다양하게 도출하는 것이며, <단군신화>에 내재된 건국신화로서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용한 자기 신화 쓰기 활동은 ‘언어 문화의 창의적 계승’이라는 국어교육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단군신화> 텍스트의 지식과 학습자의 삶을 연계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서사윤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지적, 정의적 성장’이라는 국어교육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II.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와 자기 신화 쓰기

### 1.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

이 절에서는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C.)의 구조주의 신화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신화연구 방법은 신화소(神話素)와 구조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신화 텍스트의 해체 및 재구성을 수행함으로써 신화에 내재된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 삶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드러낸다는 의의를 지닌다(中澤新一, 김옥희 역, 2003:25). ‘신화 텍스트의 해체 및 재구성’은 텍스트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학교육의 이념에, ‘신화에 내재된 관계적 삶의 의미 도출’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언어 능력 신장을 추구하는 국어교육의 이념에 맞닿아 있다. 따라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신화연구 방법은 국어교육의 장에서 신화 텍스트를 해석하는 유의미한 연구 방법의 하나로 활용 가능하다.

신화적 사고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신화연구에서 중핵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레비-스트로스(1973:205)에서는 신화가 원시의 사회 및 문화적 실재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대조적이며 반대적인 실재를 도입하는 이항대립(二項對立, Binary Opposition)<sup>4)</sup>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신화의

4) 이항대립(二項對立, Binary Opposition)은 “언어 또는 사유에서 두 개의 이론적인 대립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하나에 다른 하나를 대립하게 하는 체계(Smith, G.,

서사 구성에 도입된 이항대립을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온갖 갈등(모순)의 상징으로 규정하였다. 즉, 신화는 이항대립으로 상징된 갈등(모순)을 ‘중재하는 과정(mediation process)’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전승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갈등(모순) 해결의 논리적 모델을 구조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의 이항대립 구조를 통해 신화적 사고를 ‘인간의 삶에 내재된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모델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이로써 신화적 사고는 인간의 생활방식에 내재된 보편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핵심 요소인 동시에 엘리아데(Eliade, M.)의 신화의식 연구와의 접점으로 자리매김한다(김현자, 2001). 엘리아데는 신화에 내재된 고대인들의 존재 방식에 천착하여 신화에 내재된 본받아야 할 삶의 규범적 모델을 “원형(Archetype)”<sup>5)</sup>이라 개념화한 바 있다(Eliade, M., 심재중 역, 2003:40-46). 레비-스트로스와 엘리아데의 논의는 신화적 사고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반응해 온 존재론적 사고 구조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를 가르치는 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신화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론적 사고의 구조를 ‘신화의 원형적 사고’라 명명하고자 하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996:383)”라 정의된다. 2가지 요소를 서로 대립시켜 정의 및 규칙을 도출하는 사고의 방식으로서, 소쉬르(Saussure, F.)가 “문법 현상이 항상 사항들의 대립을 나타내 주고 있다(Saussure, F., 최승언 역, 2006:168).”라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초를 정립하는 과정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 신화연구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이재원, 1995:105-106).

- 5) 본 연구에서의 ‘원형’은 신화의 논리적, 합리적 특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융(Jung, C. G.)의 심리학적 신화연구에 제시된 ‘원형’ 개념과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융의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원형은 “원초적이고 유전적인 인간의 마음 형태로서 신화, 종교, 철학 등이 만들어내며 모든 국가 혹은 역사의 어떤 시기에 영향을 주고 그 특징을 규정하는 것(Jung, C. G., 권오석 역, 2007:99-101)”이며, 무의식의 본능적 경향으로서 비논리적, 비합리적 특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개념(Jung, C. G., 권오석 역, 2007:121)이다.

[표 1] 신화의 원형적 사고

단계	특성
I	○세계의 갈등들(문제, 모순 등)이 '이항대립'의 구조로 형상화된다.
II	○I에서 형상화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개항'이 등장한다.
III	○II의 '매개항'을 통해 갈등들이 중재 혹은 완화되며 신화의 의미(규범)를 형상화한다.

[표 1]은 레비-스트로스와 엘리아데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정리한 신화의 원형적 사고 모형이다. 먼저, 신화 속에 나타나는 이항대립은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온갖 갈등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신화의 기본이 되는 정신작용의 틀이다. 다음으로, 신화의 기능은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모델을 제공하는 것(Lévi-Strauss, C, 1973)이기 때문에 갈등을 중재할 매개항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신화 속에서 매개항에 의해 갈등들이 중재 혹은 완화되며 과거의 인간들이 지니고 있던 '본받아야 할 삶의 규범적 모델'이 형상화된다.

신화의 원형적 사고는 신화 텍스트에 내재된 존재론적 사고를 해석하는 '틀'로 활용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신화의 근본적인 의미가 사건의 연속적인 순서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묶음으로써 전달된다(Lévi-Strauss, C, 임옥희 역, 2000)”라는 점이다. 이는 신화 텍스트의 해석을 위해서는 문장들의 의미를 추차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해체하고 의미 있는 대단위인 '신화소'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윤정(2017:45)에서는 신화소의 개념을 국어교육의 장(場)으로 도입하기 위해 “원형적 의미를 갖는 매개항 중심의 대립 구조”로 재개념화한 바 있다. 이러한 신화소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신화 읽기에 접근하는 방식은 신화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 신화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를 온전히 파악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화소를 매개항 중심의 대립 구조로 분절할 수 있는 방법적 지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윤정(2017)의 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신화소 개념에 ‘인물’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서사에서 시간과 사건의 의미망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성격)을 형상화시키는 중심축이 인물이다(전한성, 2009:281-282). 신화 역시 서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신화의 원형적 사고 역시 인물을 중심으로 형상화된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며, 신화소 분절을 ‘인물 대립 구조’ 중심으로 수행한다는 방법적 지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화소의 개념을 ‘신화의 근본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매개항 중심의 인물 대립 구조’로 정의한다. 이를 수용하여 <단군신화>를 환웅 신화소, 웅녀 신화소, 단군 신화소로 분절하고 각각의 원형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웅 신화소’는 환인(桓因)이 환웅을 인세(人世)로 보내는 부분, 환웅이 인세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포함한다. 환웅은 환인의 서자(庶子)로서 신성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천상계를 통치하는 절대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결핍을 지니고 있으나, 환인의 도움으로 인간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 환웅은 성(聖)과 속(俗)의 대립(공간<sup>6)</sup>)을 통해 드러나는 상태인 인간 세계를 성스러운 상태로 변화시키며 자신의 불완전한 신성성을 보완하고 존재론적 상승을 추구한다.<sup>7)</sup> 여기서 원형적 의미 해석을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환인과 환웅의 중개(매개) 역할이다. 환웅의 중개 역할은 ‘자신의 불완전한 존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이루어지며, 환인의 중개 역할은 환웅의 처지에 대한 공감(sympathy)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환웅 서사의 신화소라 정의하고, 신화의 원형적 사고를 활용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엘리아데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은 탈신성화된 세계에서 속된 생존을 영위하는 상태를 말한다(Eliade, M., 이은봉 역, 1998:50-51).

7) 이를 엘리아데(Eliade, M.)는 성현(聖顯, hierophany)이라 개념화했다. 성현(聖顯, hierophany)이란 그리스어 heiros(신성한)와 phainomai(나타나다)의 합성어로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개념어이다(Eliade, M., 이은봉 역, 1998:49).

[표 2] 환웅 서사의 신화소

신화소	환웅 신화소
장소	
天	(嫡子) (중개) ⇕ ← 桓因 (공감) 桓雄(庶子)
(神市)	(聖) (중개) ⇕ ← 桓雄天王 (존재론적 상승 욕구)
地	(俗) (⇒) (聖顯)인간

다음으로, ‘웅녀 신화소’는 환웅이 범과 곰의 입사식(入社式)을 주관하는 부분, 곰의 인형태(人形態)인 웅녀가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출산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범과 곰은 신성성의 차원에서 결핍을 지니고 있는 속(俗)된 존재로서, ‘성현(聖顯)’의 존재로 변화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소망(존재론적 상승)을 갈구한다. 환웅은 범과 곰의 욕구에 공감하며, ‘100일 동안 쉰 한 줌과 마늘 20개를 먹으며 햇빛을 보지 말라’는 입사식(入社式)을 부여한다. 범은 입사식을 완수하여 인형(人形)을 얻고 존재론적 상승에 대한 지향을 유지하지만, 범은 입사식을 이수하지 못하고 속(俗)된 존재로 회귀하며 존재론적 상승을 포기한다. 인형(人形)을 얻은 곰(웅녀)은 ‘성현으로서의 인간’으로의 완성을 위해 잉태(孕)를 희망하며, 환웅은 웅녀의 욕구에 공감하며 잠시 인간으로 변해 혼인을 하고 단군을 태어나게 한다. 여기서 원형적 의미 해석을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환웅의 중개 역할이다. 환웅은 범과 곰의 존재론적 상승 욕구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그 이유는 환웅 역시 선천적인 결핍과 존재론적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처지인 범과 곰의 처지에 대해 공감(sympathy)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웅녀 서사의 신화소라 정의하고, 신화의 원형적 사고를 활용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환웅 서사, 웅녀 서사의 신화소

신화소 장소	환웅 신화소	웅녀 신화소
天	(嫡子) ⇕ (중개) ⇐ 桓因 (공감) 桓雄(庶子)	
(神市) 地	(聖) (중개) ⇕ ⇐ 桓雄天王 (존재론적 상승 욕구) (俗) (⇒) (聖顯)人間	(공감) 神雄 (⇒) 雄(假化) (중개)⇓(禁忌) (중개)⇓⇕(婚姻)⇒檀君 (존재론적 상승 욕구) (聖顯) 熊女(人身) (⇒) 熊女(人身+孕=人間)
(穴) 地下	(기원)⇕(願化爲人) 熊, 虎(同穴而居)	⇕ (俗) 虎(俗) (존재론적 상승 욕구 → 좌절)

마지막으로, ‘단군 신화소’는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여 통치한 부분, 기자(箕子)가 주나라 효왕에 의해 조선에 봉하여지자 단군이 숨어 산신이 된 부분을 포함한다. 단군은 부모(환웅, 웅녀)와 달리 존재의 측면에서 선천적인 결핍을 지니지 않는 ‘신성한 지배자’이다. 때문에 하늘과 땅의 중개(매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이 ‘성현으로서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질을 잃어버리고 속화(俗化)되며 문제가 발생한다.<sup>8)</sup> 속화된 인간은 단군의 중개를 받지 않고 단군이 아닌 새로운 지배자(箕子)를 자체적으로 옹립하며, 그 결과 단군은 중개의 역할을 포기하고 환신(環神)하게 된다. 여기서 원형적 의미 해석을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승자인 독자가 중개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화가 지니고 있는 시간의 통합기능<sup>9)</sup>을 고려할 때, 속화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속된 세계는 전승자

8) 이와 관련하여, “근대인이 완전히 속된 세계(탈신성화된 세계)에서 속된 생존을 영위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종교적 인간이 지닌 ‘실존’을 재발견하기 어렵다 (Eilade, M., 이은봉 역, 1998:50-51)”라는 논의를 속(俗)된 세계로의 변화 양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9)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C.)는 “신화의 제1 성격은 시간의 통합 기능이다. 그것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설명하고, 현재에 의해서 미래를 설명하는 어떤 질

(독자)들이 영위하는 시간 속에서도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승자(독자)들은 속된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 영위할 것인지, ‘성현으로서의 인간’으로 존재론적 상승을 추구하며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삶을 영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단군 서사의 신화소라 정의하고, 신화의 원형적 사고를 활용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환웅 서사, 응녀 서사, 단군 서사의 신화소

	환웅 신화소	응녀 신화소	단군 신화소 (→ 전승자)	
天	(嫡子) (중개) ⇕ ← 桓因 (공감) 桓雄(庶子)			
(神) 地	(聖) (중개) ⇕ ← 桓雄天王 (존재론적 상승 욕구) (俗) (⇒) (聖驕)人間	(공감) (공감) 神雄 (⇒) 雄(假化) (중개)⇕(禁忌) (중개)⇕(婚姻) (⇒) 檀君 (존재론적 상승 욕구) (聖) 熊女(人身) (⇒) 熊女(人身+孕=人間)	(聖)⇕(還神) ⇕ ← 檀君 王儉 ⇕ (俗)人間 (俗化)	(선택) 人間 (聖化) ⇕ 人間 (俗化)
(穴) 地下		⇕  (俗) 虎(俗) (존재론적 상승 욕구 → 좌절)		

앞서 알 수 있듯이, <단군신화>에 나타난 신화소들의 분석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원형적 의미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존재론적 상승 욕구’와 ‘공감’으로 대별된다. 첫째, 존재론적 상승 욕구란 낮은 품위(transtalent)<sup>10)</sup>

서가 영구히 계속됨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王彬, 왕희자 역, 1980:20).  
10) ‘품위(transtalent)’는 ‘talent’에 접두어 ‘trans’를 덧붙인 조어(造語)이다. 전자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수준에서 대표할 수 있는 용어이며, 후자는 거기에

에 놓인 인간이 높은 품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적 욕구를 뜻하며, 후천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장상호(2005:332-333)에 따르면, 품위는 언제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하는 나선형의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한다고 한다. 그 과정은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을 추구하는 ‘상구(上求, ascending)’와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을 추구하는 ‘하화(下化, descending)’의 두 가지 양상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존재의 품위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군신화>에서는 각각 신화소별로 존재론적 결핍을 겪는 인물이 중개(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존재론적 상승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둘째, ‘공감’은 “타자의 감정을 느끼는 것 (Scheler, M., 조정옥 역, 2006:41)”을 뜻하는 개념이다.<sup>11)</sup> 쉐러(조정옥 역, 2006:141-144)는 인간이 자아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비롯되는 영향을 덜 받은 채 타자의 실재성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감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공감의 타자 이해 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공감이 지니고 있는 자아초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지닌다. <단군신화>에서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존재론적 결핍을 겪는 인물의 처지와 욕구에 공감하는 관계 형성으로부터 존재론적 상승 욕구를 해소하는 중재 과정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존재론적 상승 욕구’와 ‘공감’은 인간의 삶에 내재된 모순성을 해소하는 논리적 모델인 동시에 본받아야 할 삶의 규범적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존재론적 상승 욕구’와 ‘공감’을 <단군신화>가 형상화하는 ‘원형적 의미’로 규정하고자 한다.

---

변전하고 초월적이며 전이(轉移) 가능한 품위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나타내는 접두어로 사용되었다(장상호, 2005:325).

- 11) 번역본에서는 ‘동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한다. ‘상대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똑같이 일치시킨다’는 의미를 지닌 ‘동감(同感)’보다 ‘상대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 ‘공감(共感)’이 환응에 대한 환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 자기 신화 쓰기의 개념 및 교육적 의의

서사(narrative)는 사건에 참여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행위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오래된 언어 소통 양식이다. 인간은 언어 활동을 통해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서사적 존재이며, 서사는 지식이나 지혜로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실천적 구동체이다(전한성, 2017:27). 국어교육의 중요한 지향 중 하나가 참된 성장을 통한 인간성 회복임을 감안한다면, 서사는 국어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적 제재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어교육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서사 교육을 이해와 감상 중심으로 전개하며 창작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창작이 ‘빼어난 예술품으로서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라는 신비화된 관점, 창작 교육을 전문적인 작가의 배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는 통념이 구성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창조성이 인간의 모든 활동에 개입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며, 창작은 ‘인간 능력의 한 표현이고 인간 정신의 독립성이며 개별성과 독창성의 표현’으로 규정되었다(유영희, 1997:421-427). 서사 교육에서도 변화된 창조성 개념을 수용하여 창작을 ‘언어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재개념화하며 7차 교육과정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다. 재개념화된 창작, 즉 ‘언어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은 순수 창작 외에도 문학 작품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창작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또한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행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서사 작품의 ‘생산’을 강조하는 것도 서사적인 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점에서 재개념화된 창작 개념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최미숙 외, 2016:365).

현행 서사 창작 교육은 대부분 시 담론이나 소설 담론에 근거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해 왔다. 시 담론이나 소설 담론은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개인의 실제 삶과 맥락에서 벗어난 허구적 경험의 세계를 다룬다. 허구적 경

험의 세계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일은 새로운 가능세계의 창조로서 현실을 변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나, 학습자들이 문학적 경험을 자신의 정서적 경험으로 전이시키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sup>12)</sup>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허구적 경험의 세계로 이해의 폭을 확장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제로 ‘일상적 경험’을 대상으로 한 서사 창작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 읽기의 과정으로서 자기 서사 창작을 실천하는 일은 “학습자 개개인의 살아 있는 개별적 경험을 자기 존재와 관련지어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지적, 정서적 의식작용의 총체화(전한성, 2017:37)”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서사 쓰기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서사와 신화는 가능세계(possible-world) 의미론<sup>13)</sup>의 관점에서 볼 때 유사한 의미적 특성을 지닌다. 가능세계 의미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서사는 실제 세계와 다른 대안적 세계를 포괄하는 ‘텍스트의 지시 세계’를 참조하여 이상적인 ‘텍스트의 실제 세계’를 형상화하고, 이를 ‘실제 세계’와 일치시키는 의미 활동을 추구하는 서사라 할 수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신화는 지니고 있는 신이성으로 인해 ‘텍스트의 지시 세계’와 ‘실제 세계’가 일치할 수 없으나, 인간의 근원적 진실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지시 세계’를 참조하여 형상화한 ‘텍스트의 실제 세계’를 끊임없이 ‘실제

12) 김근호의 논의에 따르면, 허구 서사 창작을 할 경우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거나 삶의 의미 발견이 부족하고 읽어 줄 다른 독자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 등이 발견된다고 하였다(김근호, 2009).

13) 가능세계 이론이란 허구(성)에 대한 획일화된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론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의이다(오세정, 2009). 특히 가능세계 의미론(possible-worlds santics)’은 텍스트에서 재현된 세계가 현실세계와 독립된 나름의 세계(가능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며, 이 가능세계는 모방의 대상인 현실세계와 관련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세계 속에서 지시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가능세계 이론에 따라 텍스트와 관련된 세계들은 ‘실제 세계(Actual world:인간들의 현실적 공간이자 일반적 지식과 인식이 이루어지는 경험 세계)’, ‘텍스트의 실제 세계(Textual Actual World:텍스트를 통해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세계들의 중심에 위치)’, ‘텍스트의 지시 세계(Textual Referential World:하나의 텍스트가 가능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참조한 세계)’들로 분류할 수 있다(오세정, 2010).

세계'와 일치시키는 의미 활동을 추구한다.<sup>14)</sup> '텍스트의 지시 세계'와 '실제 세계' 간의 거리, '텍스트의 실제 세계'를 '실제 세계와 일치시키려는 의미적 지향성으로 인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서사와 신화는 점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서사와 신화 서사 간의 점점을 매개 활동의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자기 신화(personal myths) 쓰기'이다. 자기 신화 쓰기란 필자가 회상을 통해 기억한 경험을 이야기의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현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통합적 언어활동이다(McAdams, D. P., 양유성·이우금 역, 2015:16-46).<sup>15)</sup> 회상을 통해 경험을 이야기 형태로 재구성하는 자기 신화 쓰기는 자기 삶의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고 텍스트로 구체화하는 서사 행위 과정 속에서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전망하는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자아 형성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현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며 자신의

---

14) 신화를 일반적인 허구로 여길 경우, <단군신화>의 '텍스트의 실제 세계(Textual Actual World)'와 '실제 세계(Actual World)'는 일치할 수 없다. "꿈이 여자로 변해 아이를 낳았다"라는 사건이 발생한 텍스트의 실제 세계가 현실의 실제 세계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화는 일반적인 허구와 달리 "실재에 대한 우리의 지식 속에서 증명할 수 없지만 믿을 만한 사실들(근원적 진실)"을 활용하여 선택적으로 '텍스트의 실제 세계(Textual Actual World)'와 '실제 세계(Actual World)'를 일치시킨다(오세정, 2009:219).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 물음인 인간과 세계, 그 존재의 근원과 질서, 인간의 본성과 삶, 운명, 구원과 관련된 실존적 물음에 대한 원초적 답변의 형태를 갖는 이야기(김윤애, 2004:51)"라는 뮈토스(mythos)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론적 특성 때문이다.

15) 관련하여, 익명의 한 심사위원께서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개인의 삶을 신화로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신화는 "공간과 시간 속으로 퍼져서 본래의 연관성을 잃어버린 듯이 보이는 것에 상실된 연관성을 회복시키는 것", '상호 관계의 균형이 심하게 깨진 것에 대해 대칭성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현실 세계에서 양립이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 공생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을 지향한다(中澤新一, 김옥희 역, 2003:30).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를 고려한다면, 세계의 구성 요소와 관계를 형성하며 공존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신화의 지향점과 연계될 수 있다. '자기 신화'는 신화의 지향점과 연계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서사화한 결과물이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자기 신화 쓰기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개인의 관심사를 내용으로 투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진실성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신화의 의의(Lévi-Strauss, C., 임봉길 역, 2005)’를 함의한다. 인간 발달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신화 쓰기는 사회 속에서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 성장을 이루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되는 ‘언어적 매개 활동(linguistic mediated behavior)’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고츠키(Vygotsky, L. S., 정희욱 역, 2009:83-91)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돕는데 사용하는 다양한 심리적 도구(기호, signs)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언어를 주목하였다. 그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때 외부의 자극에 단지 반응만 하는 것(자연의 통제)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사용하는 기호를 통해 행동에 영향(행동의 통제)을 주는 매개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때 ‘자연의 통제’라고 언급되는 외적 활동과 ‘행동의 통제’라고 언급되는 내적 활동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매개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자기 신화 쓰기는 회상을 통해 떠올린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로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내적 활동의 특성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외적 활동의 특성을 지지는 언어적 매개 활동인 셈이다.

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의 국어교육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와 신화 텍스트 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활용하는 실제적인 신화 해석을 도모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신화의 원형적 사고를 틀로 활용하여 신화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원형적 의미를 도출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신화 텍스트를 과거의 유물(antique)이 아닌 ‘해석으로서의 고전’<sup>16)</sup>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를 통해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하며 ‘삶의 총체성’을 기반으로 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개인의 언어적

16) 이는 역사를 ‘사실 그 자체로의 역사(Geschichte)’와 ‘해석으로서의 역사(Historie)’로 구분한 니체의 논의를 원용한 것으로, ‘시공간적 거리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고전 텍스트와 학습자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조희정, 2006:66).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은 타자의 경험을 포함한 자기 삶의 경험들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 삶의 경험을 글로 쓰며 자신을 성찰한다(전한성, 2017:49).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는 글쓰기 주체인 학습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평으로서의 개방성)과 성찰을 제공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언어를 통해 학습자의 주체적 의식 및 세계 규정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가치 있는 언어 자료를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지혜를 넓혀 나가는 개인의 언어적 성장(김대행, 2002:10-12)”에도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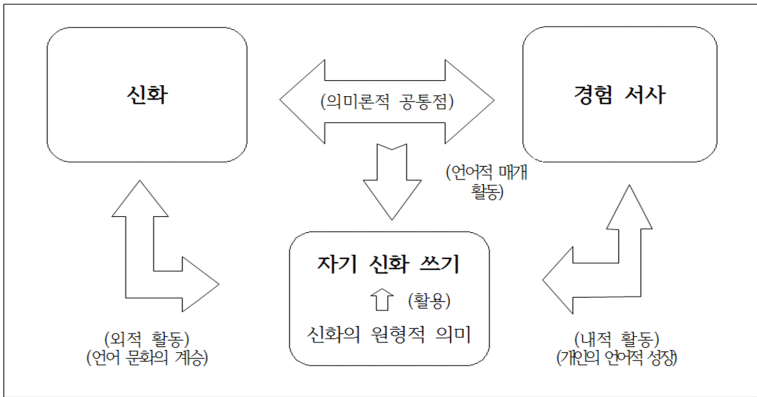
둘째, 사회화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서사 윤리의 실천을 도모할 수 있다. 최인자(2009)는 이청준의 소설을 대상으로 교육적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소설 쓰기에 나타난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를 ‘서술 층위(마주보며 이야기하기의 윤리), 재현 층위(상호 조망의 시선들), 수용 층위(책임 있게 응답하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를 참고해보면, 자기 신화 쓰기는 타자로서의 자기를 글쓰기를 통해 대면하고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성찰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행위인 것이다. 이 때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하여 자기 신화를 쓰는 활동은 신화를 현대에 전승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언어문화 유산의 계승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화 전승이란 신화의 기능인 ‘과거와 현재의 통합’을 활용하여 현대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갈등 및 모순을 해소하는 데 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민지훈, 2020). <단군신화>가 한국의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고전(古典) 텍스트로 평가 받는 이유는 원형적 의미인 ‘존재론적 상승 욕구’와 ‘공감’이 현대의 구성원들도 지니고 있는 존재적 본질인 동시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 차별화되는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sup>17)</sup>

17) 국가적 역경이 닦혔을 때 불행한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 교육 분야에 대해 어떤 국가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거두는 모습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공감’과 ‘존재론적 상승 욕구’를 방증하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인 ‘존재론적 상승 욕구’와 ‘공감’은 현대의 구성원들이 삶에서 겪는 갈등 및 모순 해결을 주제로 한 경험 서사(자기 신화)를 창작할 때 제재로 활용 가능하다.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해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고 조화와 협동의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조화와 협동을 이루며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김대행, 2002:15-17)”하는 언어문화 계승 측면에서 부합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의 국어교육적 위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의 국어교육적 위상



### Ⅲ. 자기 신화 쓰기의 교육 내용 구성

#### 1. 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의 연구는 이론과 실천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수행적 이론의 연구’라는 특성을 지닌다. 수행적 이론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행적 과정을

수행하는 규칙이나 원리 혹은 절차나 기준을 나타내는 이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적극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문제 해결의 원리와 절차 및 방법을 논하는 ‘기획적 이론’과 소극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예방책 및 제거책을 제시하는 ‘처방적 이론’으로 구분된다(이돈희, 1993). <단군신화>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 연구는 국어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개인의 성장’과 ‘언어 문화 유산의 계승’이라는 적극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획적 이론’의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국어교육 연구는 다양한 학문의 성과를 재개념화하여 교육의 기획을 구성하는 특성(박인기, 2005)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담론의 변화 양상을 주목해야 한다. 교육과정 담론은 교육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독자적인 시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영역(Pinar, W. F., 김영천 역, 2005:23)이기 때문이다. 국어교육 연구가 다양한 학문의 성과를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교육의 기획’으로 ‘종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미국의 이해 중심 교육과정(Understanding by Design)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 책무성 강화를 주장하며 대두된 ‘성취기준(standards) 중심 교육 개혁 운동’의 실천 방안으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추론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다른 분야에 전이시킬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을 패턴화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인지적 지침)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설계 담론이다(Wiggins & McTighe, 2005/강현석 외 역, 2008). 총론 차원의 교육과정 담론이 일방향적으로 각론 차원의 교과 교육과정에 투사되는 현행 교육과정 개정 체계를 감안한다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추론’, ‘전이’, ‘(개인적으로) 패턴화된 지식’이라는 이해 개념을 목표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은 국어교육 연구의 기획이므로, ‘추론’, ‘전이’, ‘패턴화된 지식’ 개념을 교육 목표 설정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특성은 ‘추론’과 ‘전이’이다. ‘추론’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사고의 과정이며, ‘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유창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온정덕·윤지영, 2017). 본 연구의 교육 기획은 신화의 원형적 사고를 활용하여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추론’하고, 그 결과를 자기 신화 쓰기의 기제로 활용하는 것(전이)이므로, 목표 차원에서 ‘추론’과 ‘전이’의 내용을 ‘수행(performance)’의 차원에서 가지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 이해의 개념을 ‘수행’의 차원으로 상세화하고 있다는 점<sup>18)</sup>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제로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 ◎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적용하여 지금까지의 삶을 해석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다.
- ◎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적용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목표 설정 과정에서 유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이해의 세부 측면 중 ‘적용(Apply)’, ‘해석(Interoret)’, ‘관점(Perspective)’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적용”하는 것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맥락에서 알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용시키는 ‘적용’ 차원의 이해를, “지금까지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삶의 사건에 내재된 개인적인 의미를 도출하고 스토리로 표현하는 ‘해석’

18)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추론, 전이, 개인적으로 패턴화된 지식’으로 정리한 이해 개념을 ‘수행’의 차원에서 상세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학습자가 대상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보이는 수행 양상을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Six Facts of Understanding)”으로 제시한 것이다. ‘설명(explain)’할 수 있고, ‘해석(interpret)’할 수 있고, ‘적용(apply)’할 수 있고, ‘관점(perspective)’을 가질 수 있고, ‘공감(empathize)’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고과정을 성찰(자기-지식, self-knowledge)’할 수 있다는 것이다(Wiggins & McTighe, 2005/강현석 외 역, 2008).

차원의 이해를,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관점’ 차원의 이해를 반영한 목표 진술이다.

둘째, 수행의 차원에서 이해 개념을 상세화하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매개 활동의 위상을 지니는 ‘개인적 신화 쓰기’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삶을 해석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 신화 쓰기가 지니고 있는 ‘회상을 통해 기억한 경험을 이야기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특성을 반영한 목표 진술이다.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신화 쓰기가 지니고 있는 ‘현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통합적 언어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진술이다.

## 2. 교육의 내용 구성

교육의 내용 구성은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what to teach?)’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적 기획의 중핵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국어 교육의 내용은 교육의 대상인 ‘언어’의 속성인 과제(task), 사실(fact), 정체성(identity), 의미(meaning)에 따라 수행, 지식, 태도, 경험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김대행, 2005). 본 연구에서는 수행의 측면에 주목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의미를 성찰하고 ‘존재론적 상승 욕구’와 ‘공감’이라는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적용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활동 과제로 상세화하고자 한다.<sup>19)</sup> 내용 구성의 전제는 두 가지이다.

---

19) 물론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은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원형적 의미를 적용하여 자기 신화 쓰기를 ‘수행’하는 것, 자기 신화 쓰기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을 형성하는 것을 모두 내용으로 포괄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와의 긴밀한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해의 개념을 ‘수행’의 차원으로 상세화하고 있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전제로 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에 내용 역시 수행의 차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첫째, ‘지식’과 ‘수행’의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 지식 범주와 수행 범주는 각각 기반을 두는 언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 교육의 장(場)에서 분절적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 단순한 이론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 아니라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의 위상을 지닌다.<sup>20)</sup> 따라서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활동 과제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수행과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과정 중심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 과제를 구안해야 한다. 국어과의 교재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과정 중심 원리’는 ‘학습자 중심’이라는 기치 하에 “학습자의 반응과 그것의 표출”을 중요시하는 것이다(최미숙, 1998:12). 경험 서사 창작은 학습자의 과거-현재-미래 경험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 신화 쓰기’의 갈래적 특성은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최인자(2003)에 따르면, 수행적 차원에서의 갈래는 제반 표현활동을 규정하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특정 갈래의 규약을 각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글쓰기의 갈래적 관습을 메타적으로 반성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러한 관습을 생산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며 새로운 관습을 모색하는 창조적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다(최인자, 2003:444). 자기 신화 쓰기는 신화와 경험 서사의 매개 활동이기 때문에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에서 ‘수행적 차원에서의 갈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활동 과제의 구안에 활용한 개인적 신화 쓰기의 갈래적 특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회상적 특성이다. 회상(reminscence)

20) 이홍우는 ‘이론적 지식’을 ‘보는 지식’으로, ‘실제적 지식’을 ‘하는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보는 지식(이론적 지식)’은 문제 사태가 존재하지 않고 내적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반면, ‘하는 지식(실제적 지식)’은 문제 사태가 존재하며 외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이홍우, 2009:91).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지식은 수행 과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는 지식(실제적 지식)’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Big Ide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는 지식(실제적 지식)’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은 ‘과거의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인지적·정서적 양식(Berk, L. E., 이옥경 외 역, 2009, p.322)’이라 정의할 수 있다. 회상은 개인 내면의 측면에서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대외적 측면에서는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여하고 있는 사고 활동이기 때문에 자아정체성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매개 활동이다(태선경·민지훈, 2012:362). 따라서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의 내용은 ‘회상’을 중요한 활동 기제로 삼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과거-현재-미래 경험의 통합성이다. 인간의 경험은 인간의 행위들을 ‘시간’에 따라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해 이야기되며, 인간의 시간은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Ricoeur, P., 김한식·이경래 역, 1999). 시간의 연속성으로 인해 인간의 경험을 제재로 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 개인적 신화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개인적 신화는 기억된 과거, 인식된 현재, 예견되는 미래가 통합된 상상력의 행위인 것이다(McAdams, D. P., 양유성·이우금 역, 2015). 따라서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의 내용도 학습자가 기억된 과거, 인식된 현재, 예견되는 미래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의 내용 구성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의 내용 구성

	활동 과제		지식
1	기억된 과거	◎ <b>과거의 삶과 가치와의 관계 파악하기</b> ①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요소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② ①에서 제시한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례를 찾아 타인에게 발표해 보자.	존재론적 상승 욕구
2	인식된	◎ <b>현재의 삶과 가치와의 관계 파악하기</b> ①-1 현재의 모습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와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삶의	공감

	현재	모습을 제시해 보자. ①-2 현재의 모습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와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삶의 모습)를 제시해 보자. ②-1 삶에서 가치를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공감’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자. ②-2 삶에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공감’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자.	
3	예견된 미래	◎ 미래의 삶과 가치와의 관계 파악하기 ① 가치와 관련하여, 자신의 미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 여겨지는 신화의 형태를 선택해 보자. ② 선택한 신화의 형태를 활용하여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모두 포함한 개인적 신화를 창작해 보자.	개인적 신화의 4가지 형태

1단계 ‘과거의 삶과 가치와의 관계 파악’하기에서 학습자는 회상을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였던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한다. 인간이 삶을 통해 중시하는 가치는 필연적으로 존재론적인 품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연계된다. 따라서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 중 하나인 ‘존재론적 상승 욕구’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삶을 통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가치 성찰 후, 학습자는 타인에게 자신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성찰의 결과를 공고히 한다.

2단계 ‘현재의 삶과 가치와의 관계 파악하기’는 두 단계로 세분화된다. 먼저, 학습자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영아기(0~2세)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양상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을 형성(Erikson, E. H., 송제훈 역, 2014)하는데, 개인적 신화의 분위기(narrative tone)는 영아기 때 형성된 삶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에 큰 영향을 받는다(McAdams, D. P., 양유성·이우금 역, 2015:63).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여길 것이다. 반면에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길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선택한 후, 그 이유와 뒷받침하는 삶의 경험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현재상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자신의 현재상에 대한 인식이 끝난 후, 학습자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자 및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구성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방안 모색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 바로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 중 하나인 ‘공감’이다. 공감과 연계하여 가치를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이 처한 실제 세계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며, 변화 가능성을 텍스트의 지시 세계로 삼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 형상 충동을 갖게 된다(우한용, 2009:56-59). 이러한 학습자의 변화 양상은 타인 및 세계와 관계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자아 정체성 확립 과정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단계 ‘미래의 삶과 가치와의 관계 파악하기’에서 학습자는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드러낸 반응을 ‘개인적 신화 쓰기’ 활동으로 집약한다. 문제는 학습자가 문학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경험 서사 창작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하며, 주목할 만한 개념으로 ‘개인적 신화의 형태들’을 들 수 있다. 맥아담스(McAdams, D. P.)는 프라이(Frye, N.)의 논의를 활용하여 ‘개인적 신화’의 형태들을 희극(comedy), 로맨스(romance), 비극(tragedy), 풍자(irony)로 나눈 후 각각의 중심적 메시지를 형태적으로 정리하였다(McAdams, D. P., 양유성, 이우금 역, 2015:67-69). 첫째, 희극(comedy)은 “우리에게는 각기 인생에서 행복을 성취하고 고통과 죄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 말하는 삶의 이야기를 위해 행복한 결말을 찾을 기회를 갖는다.”를 중심적 메시지로 하는 형태이다. 둘째, 로맨스(romance)는 “우리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생기는, 인생의 길고 어두운 여향을 떠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계속 변화하고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한다.”를 중심적 메시지로 하는 형태이다. 셋째, 비극(tragedy)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부조리를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 고통, 기쁨, 슬픔, 행복이 항상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주의하라,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의도가 실패로 이끌어 갈 것이다.”를 중심적 메시지로 하는 형태이다. 넷째, 풍자(irony)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크고,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호함을 만난다. 우리는 삶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관행에서의 부조리와 위선을 폭로하는 ‘익살꾼’ 또는 ‘바보’이자 ‘반영웅(antihero)’이다.”를 중심적 메시지로 하는 형태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미래의 삶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예견한다. 이후 상상한 모습과 가장 밀접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적 신화의 형태를 선택한다. 학습자가 개인적 신화 형태를 선택한 이유는 경험 서사인 ‘개인적 신화’ 내 용으로 형상화되며, 1단계를 통해 드러낸 ‘기억된 과거’와 2단계를 통해 드러낸 ‘인식된 현재’를 함께 집약하여 ‘개인적 신화’를 창작한다. 학습자는 ‘개인적 신화’의 창작 과정을 통해 마음 속에 그린 미래에 비추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상상적 재구성을 수행하며 ‘세상을 보는 관점’을 기르게 된다.

#### IV. 남는 문제들

본 연구는 <단군신화>를 제재로 한 국어교육 내용이 역사적 기능성에 기반한 해석에 편향되어 있으며, 작품의 수용 측면에만 집중하여 생산 측면의 교육적 의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군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활용한 자기 신화 쓰기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신화와 경험 서사 간의 의미론적 공통점을 언어적 갈래로 형상화한 것이 ‘개인적 신화’임을 밝힌 후, 개인적 신화의 갈래적 특성과 <단군신화>의 원

형적 의미를 연계하여 학습자가 자기 신화를 창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 구안한 교육 내용은 국어교육의 목적 중 ‘개인의 언어적 성장’과 ‘언어 문화 유산의 계승’ 측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구안한 교육 내용은 교육의 실행을 위해 활동 수준과 범위, 유의사항을 압축해 제시한 대강(大綱)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교육 내용 대강은 교수자의 교육관에 따라 다양하게 상세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교육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수행적 이론의 연구 차원에서는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방법의 차원에서 교육 내용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모형을 개발한 후, 실행 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해 교육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며 현장성을 제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이기에 반성적 실마리로 남기며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장명혜(2007),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  
전연구소.
- 김경자 외(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 김근호(2009),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행(2002), 「국어교과학의 과제」, 『청람어문교육』 25, 청람어문교육학회.
- \_\_\_\_\_(2005),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  
육학회.
- 김윤애(2004), 「서양의 철학적 사유구조에 나타난 신화」, 『기호학연구』 15,  
한국기호학회.
- 김현자(2001), 「신화 연구방법의 모색을 위한 성찰 : 뒤메질의 비교신화학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적 연구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3, 한국  
구비문학회.
- 민지훈(2020), 「<단군신화>의 전승 교육 내용 연구 : 원형(archetype)적 인  
간 추구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기(2005),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 : 재개념화 그리고 가로지르기」, 『국  
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 \_\_\_\_\_(2008), 「독서환경의 변화와 고전(古典)」, 『독서연구』 19, 한국독서학회.
- 박인철(2011), 「이질감과 친근감 : 상호문화성의 양면성에 대한 현상학적 고  
찰」, 『철학과 현상학 연구』 50, 한국현상학회.
- 오세정(2009), 「신화의 가능세계와 의미론 : 가능세계의 특성과 관계를 중심  
으로」, 『시학과 언어학』 16, 시학과언어학회.
- \_\_\_\_\_(2010), 「신화, 판타지, 팩션의 서사론과 가능세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_\_\_\_\_(2014),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 다시쓰기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윤정덕·윤지영(2017),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서 단원 설계 방안 탐

- 색』, 『미래교육학연구』 제30권 제1호, 연세대 교육연구소.
- 우한용(2009), 『창작교육론 : 삶 읽기, 글 읽기, 글 쓰기』, 태학사.
- 유영희(1997), 「창조적 글쓰기와 문학교육 평가」, 『문학교육학』 1, 한국문학  
교육학회.
- 이용주(1995), 『국어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인제 외(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2005-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원(1995), 「단군신화의 문학적 고찰(2) : 구조와 모티프를 중심으로」, 『국  
제어문』 16, 국제어문학회.
- 임봉길(2008), 「구조/탈구조와 우리 : 구조주의 논리체계와 신화학」, 『기호학  
연구』 24, 한국기호학회.
- 장상호(2005), 『학문과 교육 중(Ⅰ) :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대 출판부.
- 전한성(2009), 「서사교육에서 허구서사의 ‘인물’ 문제 연구」, 『국어교육』 130,  
한국어교육학회.
- \_\_\_\_\_(2017), 『경험 서사 창작 교육의 이론과 실천』, 동국대 출판부.
- 정구향·최미숙(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창작 교육」,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학회.
- 조재식(2005), 「백워드(backward)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고찰」, 『교육과정연  
구』 제23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조희정(2006),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 \_\_\_\_\_(2015), 「변화와 성장의 서사로 <단군신화> 읽기」,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 최미숙 외(2016), 『국어 교육의 이해』, 개정 3판, 사회평론.
- 최인자(2003), 「표현 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선청어문』 31, 서울대 국어  
교육과.
- \_\_\_\_\_(2009),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독서연구』 22, 한국독  
서학회.

- 태선경, 민지훈(2012), 「‘자아 통합’ 추구를 위한 노인 독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독서연구』 28, 한국독서학회.
- 황윤정(2017), 「신화소 중심의 설화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혜진(2012), 「<단군신화>에 대한 현대 독자의 수용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 Berk, L. E., 이옥경 외 역(2009), 『생애발달 II : 청소년기에서 후기 성인기까지』, 시그마프레스.
- Erikson, E. H., 송재훈 역(2014),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 Eliade, M., 이은봉 역(1998), 『성과 속』, 한길사.
- Eliade, M., 심재중 역(2003), 『영원회귀의 신화 : 원형과 반복』, 이학사.
- Green, L., 유기천 역(2000), 『신화와 점성학』, 문학동네.
- Jung, C. G., 권오석 역(2007), 『무의식의 분석』, 홍신문화사.
- Lévi-Strauss, C.(1973). *Anthropology structure deux*, Paris, Plon.
- Lévi-Strauss, C, 임옥희 역(2000), 『신화의 의미』, 이끌리오.
- Lévi-Strauss, C, 임봉길 역(2005), 『신화학 I : 날 것과 익힌 것』, 한길사.
- McAdams, D. P., 양유성,이우금 역(2015), 『이야기 심리학 : 개인적 신화의 탐색과 재구성』, 학지사.
- Pinar, W. F., 김영천 역(2005),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문음사.
- Ricoeur, P., 김한식,이경래 역(1999),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 지성사.
- Saussure, F., 최승언 역(2006), 『일반언어학 강의』, 신장관, 민음사.
- Scheler, M., 조정옥 역(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 Vygotsky, L. S., 정희욱 역(2009)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 : 비고츠키의 인간 고등심리 과정의 형성과 교육』, 학이시습.
- Wiggins & McTighe, 강현석 외 역(2008), 『거꾸로 생각하는 교육과정 개발 : 교과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학지사.
- 王 彬, 왕희자 역(1980),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 中澤新一, 김옥희 역(2003), 『신화, 인류 최고(最古)의 철학』, 동아시아.

【Abstracts】

A Study on the Contents of Personal-myths Writing  
Education Using the Archetypal Meaning of  
<Dangun Myth>

Min Ji-hoon · Jeon Han-sung

This study aims to prepare educational contents of writing personal-myths by utilizing the archetypal meaning of <Dangun Myth>.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archetypal meaning of <Dangun Myth> is derived using the structuralist mythological research method of Lévi-Strauss (C.), after confirming that writing a Personal-myths is a linguistic mediated behavior that implies the semantic similarity between the experience-based self-narrative and the myth, it was argued that writing personal-myths using the archetypal meaning of <Dangun Myth> has Korean language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erms of "individual linguistic growth" and "the succession of language and cultural heritage". Second, the goal of writing personal-myths using the archetypal meaning of <Dangun Myth> is detailed in terms of "Apply", "Interpret", and "Perceptive" of the Understanding by Design,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were organized using the 'interconnect between knowledge and performance' and 'process-centered principles' and the integrated view of 'remembered past-recognized present-predicted fu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vide learners with an opportunity to internalize the value of narrative ethics and embodies the possibility that interpretations of classical texts can be pursued in various ways in conjunction with learners' lives.

**Key words :** Structuralist mythological research method of Lévi-Strauss (C.), Archetypical meaning of <Dangun Myth>, Existential ascending, Sympathy, Personal-myths writing, Understanding by Design

이 논문은 2021년 02월 26일에 투고되었으며, 2021년 03월 2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1년 03월 2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